

삼척 미로단오제의 보존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eservation of Miro Danoje

김도현*

국문요약 매년 단오에 거행되는 미로단오제는 그 시작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내륙지역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굿이 사라졌으나, 미로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매년 미로면민 전체를 위한 단오제를 거행하고 있다.

고을 단위로 설행되는 강릉단오제·자인단오제, 마을 단위로 열리는 삼척 선흥마을 단오제, 큰 서낭제 형태로 열리는 삼척 교곡마을 단오제 전통과는 달리 미로단오제는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골말과 둔점마을 주민들이 주도하고, 미로면민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미로단오제가 지닌 가치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이를 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오를 맞이하여 미로면 내 각 하위 마을별로 전승되고 있는 단오굿과 마을 서낭고사, 조상제사 전통 등을 폭넓게 조사·정리·분석하여 미로단오제 전통 확립에 적용한다면 미로단오제가 지닌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둘째, 미로면 하거노리 골말과 둔점에서 모신 신령 중 ‘단군’이 있다. 그런데, 미로단오굿 중 이에 대한 거리가 없다. 미로 단오굿 설행 과정에서 단군에 대한 관심과 천착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미로단오굿을 서낭굿으로 볼 수 있고, 주로 이 지역에서 무업에 종사한 강신무들이 주도하며, 마을 제당 앞에 굿당을 설치하여 굿을 한다. 별신굿에 참여하는 무당들이 참여하나, 이는 초빙되어 온 입장이고, 굿거리에서 중시하는 신령과 이에 의탁하여 기대하는 신앙적 요소 또한 분명 별신굿과 구분된다. 이에 동해안 별신굿과 구분되는 미로 단오굿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인식이 필요하다. 넷째, 삼척지역 단오굿 중심은 오금잠제이다. 이에 미로단오제 또한 오금잠제와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규명하여 미로단오굿만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로단오제를 올바르게, 가치있게 전승·보존하기 위해 미로단오제가 지닌 가치를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미로면, 단오, 미로단오제, 서낭굿, 오금잠, 조상잔말이, 조상상, 세존굿

*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1. 머리말
2. 미로단오제 개황
3. 미로단오제 보존 방안
4. 향후 과제

1. 머리말

조선시대에는 군현 단위의 큰 단오제가 지역마다 행해졌다. 강릉단오제는 대관령 국사서낭을 모셨고, 본격적인 제의는 음력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삼척에서 오금잠제를 단오에 지냈는데, 지방 향리들에 의해 단오에 신상을 앞세우고 제의祭儀가 거행된 예를 강원도 내에서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즉, 강릉의 국사성황제 중 신령을 성황사에 모심과 치제致祭, 양구에서의 성황신 모심, 영월에서 목우인木偶人을 제당에 모셔서 해마다 단오에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갖추어 무당으로 하여금 제의를 주도하게 한 사례, 양양 읍치성황사에서 매년 무격이 한 해의 무사함을 위해 신령에게 제사지낸 사례 등이 있다.

지역 단위의 단오행사가 성행하였던 사례를 알아보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강원도 삼척지역 내에서 단오에 마을제사를 지내는 곳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202개 마을 사례 중 32개 마을이 이에 해당하였다.⁰¹ 강원도 내 조사 대상 마을 중 5월에 총 59개 마을에서 동제를 지냈는데, 이 중 삼척에서 32개 마을, 즉 단오고사의 절반 이상이 삼척에서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이 강원도 단오문화권의 대표 지역

0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강원도편』, 1999, 377쪽.

이었다고 볼 수 있다.⁰²

1993년에 발간된 자료에서도 정월 대보름 47개 마을, 단오에 37개 마을, 정월 택일 31개 마을, 1월 1일 21개 마을, 12월 30일 8개 마을, 10월 15일 6개 마을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정월에 99개 마을, 그 다음으로 단오에 37개 마을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1967년 통계와 유사함을 알 수 있고, 단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중시된 점 또한 주목할만한 요소이다.⁰³

허목이 지은 『척주지』 등 각종 기록에 따르면 삼척지역에서는 매년 단오에 읍치 성황사에 오금잠을 모셔서 오금잠제를 거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체제공이 쓴 시에 의하면 오금잠굿을 성대한 곳으로 서술하였고, 이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전쟁 때까지 매년 단오에 삼척 읍치 성황사와 사대광장 등에서 영동지역을 대표하는 단오제가 열렸다.

현재 삼척지역에서는 오금잠제의 전통을 이어받아 연행된다고 전해지는 단오굿이 미로를 비롯하여 선흥·초곡 등 여러 마을에서 열린다. 미로지역을 예로 들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참가하며, 각지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어 비록 규모는 작지만 먹거리를 중심으로 미로 단오장이 서는 등 전통이 잘 전승되었으나, 현재 그 전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대한 보존과 전승이 매우 중요하다.

매년 단오에 거행되는 미로단오제는 그 시작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내륙지역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굿이 사라졌으나,

02 1967년 조사 자료를 보면, 현재 단오 행사로 유명한 강릉시 54개 마을에서 5월에 제사 지낸 사례가 없으며, 명주군은 조사된 238개 제당 중 13개 제당에서 5월에 동제를 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후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하겠지만, 1967년 통계는 강원도에서 삼척지역이 단오문화권의 중심지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03 김도현, 『삼척지역의 마을공동체 신앙과 성(性)』, 『강원민속학』 19, 강원도 민속학회, 2005.

미로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매년 미로면민 전체를 위한 단오제를 거행하고 있다. 이 때 미로지역 내 거의 모든 마을에서 이에 참여하기 위하여 굿당에 모여드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삼척지역 내 근덕 선흥마을, 초곡 마을 등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위 지역 외의 마을에서 현재 단오굿을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단오를 맞아 실시하는 마을굿 중 미로단오굿의 특성과 가치성을 잘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미로단오굿에 대하여 김명자(김지옥), 이창식, 김도현, 윤동환, 전성희 등에 의해 삼척지역 단오 전통 속에서의 미로단오굿, 설행 과정과 의미 등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미로단오굿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그 전승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⁰⁴

미로단오제는 고을단위로 설행되는 강릉단오제·자인단오제, 마을단위로 열리는 삼척 선흥마을 단오제, 큰 서낭제 형태로 열리는 삼척 곡곡마을 단오제 전통과는 달리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골말과 둔점마을 주민들이 주도하고, 미로면민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이와같이 읍·면 단위로 단오제를 이어온 전승 사례를 전국에서 찾기 힘들다. 이에 미로단오제 설행과정과 그 가치를 잘 보존하고, 이를 잘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미로단오제에 대한 현장 조사 자료와 함께 그간의

04 미로단오제 조사·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명자, 「마을굿 연행 양상 고: 삼척 미로 서낭단오굿을 중심으로」, 『문화재』 25, 국립문화재연구소, 1992; 이창식, 「삼척지역 미로단오제의 전승양상」, 『아시아강원민속학』 22, 아시아 강원민속학회, 2008; 김도현 외, 「미로단오제」, 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0; 윤동환, 「삼척의 무속」, 삼척시립박물관, 2011; 전성희, 「삼척 미로단오굿의 연행양상과 특징」, 『민속연구』 36,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18; 김도현, 「삼척 미로단오제 고찰」, 『아시아강원민속학』 34,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20.

조사·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로단오제를 개관한 후 이에 대한 보존·전승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⁰⁵

2. 미로단오제 개황

2.1. 개요

미로단오굿은 미로 단오서낭굿이라고도 하는데, 매년 단오에 성황신 숫서낭을 미로면 하거노리 골말 서낭당에서 굿당이 설치된 하거노리 둔점 마을 서낭당에 모셔와 단오굿을 하였다. 이때는 하거노리뿐만 아니라 미로면 내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굿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단오제를 ‘단오굿’ 또는 ‘단오서낭굿’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굿당에 가는 것을 “단오굿하는 데 가자”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굿을 5월 단오 하루굿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1박 2일, 즉 단오와 그 다음 날 오전 10시경까지 하였다고 한다. 1961년 5·16 군사정변(박정희 정권) 이후 무속 행사를 미신이라 하여 없애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현재와 같이 축소된 형태로 이어져오고 있다. 굿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성의대로 돈이나 곡물을 걸어서 마련하였으며, 흉년이 들면 삼척 김씨가 후원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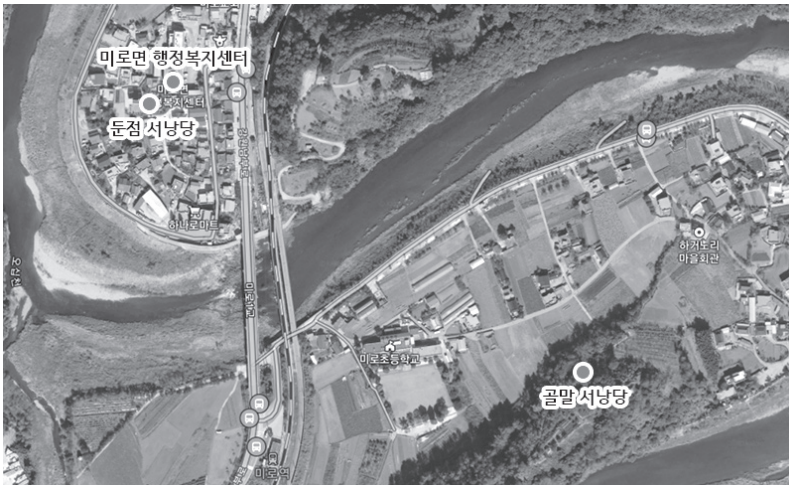
미로단오굿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제보가 없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연세가 많은 분들의 선대 어른신들도 그 시작

⁰⁵ 본문에서 사례로 제시한 미로굿은 필자가 2008년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필요시 그 이전과 이후에 조사한 내용들, 그리고 2023년 조사 내용(강원대 유춘동 교수 촬영 사진 및 동영상)을 주로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2023년 미로단오제 촬영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해 주신 유춘동 교수께 지면으로나마 감사드린다.

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매우 오래전에 시작되었음은 분명하다.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수준에서 예전에 미로굿을 주재하였던 무당은 엄무당, 연파무당, 헛까부리, 최분녀인데, 마을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 이들 무당들이 번갈아 굿을 하였다. 이후 1983년부터 최분녀 무녀 1927년생, 별명 분녀무당, 분녀보살가 미로단오굿을 주재하면서 최 무녀의 단골판이 되었다. 최분녀 무녀가 돌아가신 후에는 신용철 무당이 2002년까지 주도하였다. 그 뒤를 이어 삼척에서 활동하는 이옥선 무녀, 심귀남 무녀, 최옥화 무녀 등이 주재하였다. 최근에는 김종식 법사와 윤순만 법사, 정해순 무녀 등이 미로단오굿을 주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2. 전승 환경

삼척시 미로면은 지형적 측면에서 태백산 자락에서 발원한 오십천이 도계와 신기를 지나 삼척으로 향하는 하류부에 해당한다. 미로면은 두타산과 이를 잇는 백두대간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이와 함께 솔모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둔점 서낭당과 곶말 서낭당 위치

www.kci.go.kr

산맥과 근산, 육백산 등이 미로면을 편안하게 감싸 안듯이 둘러싼다.

하거노리는 예전에 하거노1·3·4리가 한 마을이어서 하거노1리로 지칭하였으나, 지금은 4개 리로 분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거노1리인 둔점, 3리인 청골, 가꾸골, 심두둑, 하거노4리인 골말로 구성되어 있다. 병자년^{1936년} 수해^{水害}로 마을이 침수되었기에 골말에 있던 많은 집들이 둔점으로 이주하였다. 때문에 하거노리에서는 골말을 큰말, 또는 본동이라 한다.

마을 주민들은 정초에 마을 고사를 지내고, 정월 대보름에 모여 놀았으며, 2월 초하루 영등에 영등떡을 하여 각 가정별로 영등 제사를 지냈다. 삼월 삼짇날에는 선유산을 비롯하여 조상 대대로 다닌 산에 올라 산맥이를 하였고, 사월 초파일에는 인근에 있는 천은사를 비롯하여 구방사, 명적암 등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 5월 단오에는 조상 제사를 지내고 마을 공동으로 서낭굿을 하여 마을 내 안전과 개인 안녕, 풍농을 기원하였다. 이와 함께 면민들이 둔점 할머니서낭당 앞에 모여 굿을 보며 하루를 즐겼다. 8월 추석에는 마을 단위 행사가 없이 가구별로 집안 제사를 지냈으며, 10월에는 전사를 지내기 위해 집안 사람들이 모여 옷대 조상 묘에 제사를 지낸다.

삼척에서 단오에 즈음하여 고을 차원의 오금잠제⁰⁶를 지냈고, 초곡·공촌·삼거리·교곡을 비롯하여 삼척 관내에 속한 많은 마을에서 서낭 제사를 지내고, 단오굿을 하였는데, 이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로지역 또한 단오 전통이 잘 전승되는데, 가장 오래된 전통은 둔점과 골말 주민들이 주도하여 매년 단오굿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단오에 마

06 오금잠(烏金簪)에 제(祭)한다. 고을 사람이 잠(簪)을 작은 함에 담아, 관아(官衙) 동쪽 모퉁이 나무 밑에 감추었다가 단오날이면 끄집어내고, 제물을 갖추어 제사한 다음 이튿날 도로 감춘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풍속조(風俗條)」 참조.

을 단위 서낭고사를 지내는 곳이 많다. 각 가정별로 조상 제사를 이른 아침에 지내는 가정이 많았으며, 단오 약쭈를 만들기도 하였다.

2.3. 전승 주체

본래 미로 단오서낭굿은 미로면 하거노리 둔점과 골말 주민들이 주도하였기에 제관들은 늘 둔점과 골말 주민 중 생기를 보아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전승 주체는 미로면 하거노리 둔점과 골말 주민들로 볼 수 있다. 이후 삼척시에서 미로단오굿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미로단오굿이 미로단오제로 확대되었고, 단오굿과 함께 각종 체육대회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미로면 문화체육회에서 주무 선정에서부터 굿 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토의하여 결정하게 되었고, 의사 결정의 편의를 위해 미로면 문화체육회 산하에 단오분과위원회를 두어 단오굿 실무를 논의하고 있다.

단오분과위원회에서 미로단오굿과 관련해 굿당을 설치하고, 도가와 제관을 선정하였다. 제관과 도가는 둔점과 골말 주민들 중에서 선정하여 진행한다. 미로단오굿을 할 때 골말 서낭을 하거노리 둔점으로 모셔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굿을 주재하는 무속인을 선임하는 건은 문화체육회에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미로단오굿을 전승하는 주체는 하거노리 둔점·골말 주민들이나, 단오굿을 포함한 단오제에 미로면민들이 폭넓게 동참하므로 미로면민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전승주체로 볼 수 있다.

2.4. 전승 내용

2.4.1. 시기 및 장소

미로단오제는 매년 단오에 열린다. 하거노리 둔점 서낭당에 굿당이 설치되었으며, 그 주변에 그네와 씨름장,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었고 임시 장場이 서기에 단오제가 열리는 주된 장소는 둔점 서낭당과 그 주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굿당에 모셔오는 골말 성황이 좌정한 곳은 하거노리 골말이다. 골말은 미로면 하거노리의 본동으로 미로면사무소가 있었다고 한다. 원래 골말 서낭당은 現미로초등학교 뒤 모서리 진 곳 좌측에 있었다. 1971년 4월 25일 마을 뒷산 중턱으로 이전하였으나, 2008년 봄 다시 지었다. 제당은 정면 1칸, 측면 1칸 크기이다. 지붕은 좌우에 풍관을 설치한 맞배지붕 형태의 기와지붕이다. 제당 정면에 양여단이문으로 출입구를 만들었고 좌우측 벽에 창문을 각각 1개씩 내었다.

내부 정면에 1자형 제단을 설치하였고, 제단 위에 위패 형태로 3신위를 모셨다. 좌측부터 단군대왕신위檀君大王神位·성황대신신위城隍大神神位·토지지신신위土地之神神位이다. 성황대신 옆에는 한지에 실 한 타래를 맨 위목지를 세워두었다. 마을 주민들의 성황대신을 통해 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을 성황대신을 중앙에 모셨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제당 오른쪽에 만들어진 제단은 정월 초하루 서낭고사를 지낼 때 수부신을 위한 제물을 진설하였기에 수부단으로 볼 수 있다.

골말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 자시에 마을 제사를 지내는데, 주민들은 이를 서낭고사라고 한다. 단군대왕檀君大王·성황대신城隍大神·토지지신土地之神을 함께 모신다. 이들 신령들께 마을의 안전과 평안,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모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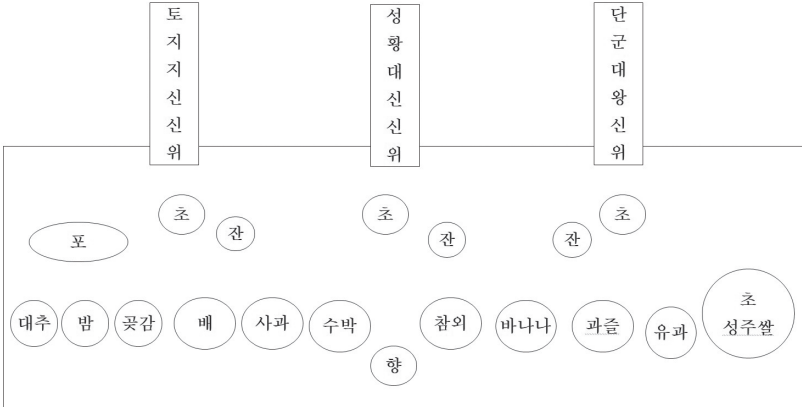
미로면 하거노리 둔점마을에서도 암서낭당에서 정월 초하루 자시에 서낭고사를 지냈다. 하거노리 둔점 서낭당은 하거노리 오십천 옆으로, 둔점 마을의 뒤쪽에 해당한다. 오래된 신목 여러 그루가 있는 당숲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제당 앞도 오래된 나무들로 채워져 있다. 제당은 신목 아래에 제단을 설치하고 주변에 ㄷ자형 담장을 둘렀다. 제당 옆에는 그네를 타고 놀 수 있도록 전봇대 2개를 세웠다. 2000년 6월 1일 신목 앞에 제수를 진설하는 제단을 설치하였다.

2.4.2. 제관·주무 선정 및 설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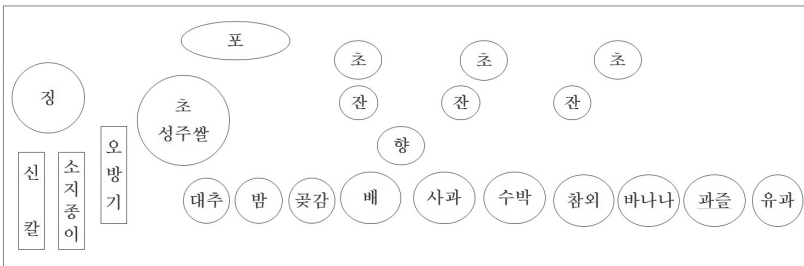
미로단오제를 준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제관과 주무 선정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로단오제 개최가 불투명하였으나, 음력 사월 닷새에 미로면 문화체육회가 주도하여 용모 단정한 둔점 마을 주민 중에서 생기를 고려하여 제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당주와 제관은 단오굿이 끝날 때까지 근신해야 한다. 이는 나쁜 것을 피하고 흉사에 가지 않는 것으로, 생일이나 칠순, 병문안, 애 낳은 집, 제사 지내는 집 등에 출입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많은 금기를 지켜야 하고, 굿의 일부 음식을 준비해야 하기에 당주와 제관들에게 마을에서는 적정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 예전에는 복을 받으려고 당주를 서로 하려 하였으나, 지금은 서로 미루는 형세라고 한다. 만약 부정이 있거나 피를 보면 제관을 내어 놓아야 한다.

2021년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간단하게 비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둔점 서낭당에서 부정굿을 할 때 올린 제물은 소주 한 병이었다. 이어서 진행한 당맞이굿과 성황굿에서는 같은 제물로 진설하였다. 이 때 준비한 제물은 배치 순서대로 과일배·사과·수박·참외·바나나, 삼실과

대추·곶감·밤, 과즐, 유과, 포, 술청주, 성주쌀이다. 지난 수년간 미로단오굿을 주관하였던 윤순만 법사가 제물 준비를 담당했고, 각종 과일과 술, 소지 종이 등을 구입하기 위해 약 150만 원 지출되었다.



미로단오굿 중 끝말 서낭당에서 당맞이굿 제물 진설도(2021년)



미로단오굿 중 둔점 서낭당에서 성황굿 제물 진설도(2021년)

2.4.3. 진행 과정

㉠ 부정굿

2021년 오월 단오 오전 7시 30분 김종식 법사와 정해순 무녀가 미로면 하거노리 둔점 서낭당 제단에 술을 한 병 올려두고 부정경을 구송하며 부정을 가져내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로 인

해 미로단오굿을 원래의 형태로 할 수 없어, 부득이 간단하게 둔점 서낭과 골말 서낭에 고희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이처럼 간단하게 고희 후 김종식 법사를 비롯한 무녀와 제관들이 서낭대를 들고 미로면 하거노리 골말 서낭당으로 향하였다.

㉠ 당맞이굿

김종식 법사가 서낭대를 들고 골말 서낭당으로 향하였다. 원래는 서낭대를 제관이 모셔야 하나, 골말 서낭당으로 가는 과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 김종식 법사가 서낭대를 모시고 갔다. 도착 후 서낭당 내부를 정리하고, 김종식 법사가 서낭당 앞에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징을 치며 오방신에게 ‘골말서낭님께 인사하러 왔음’을 알렸다. 이후 정해순 무녀와 함께 서낭당 내에 제물을 진설하였다. 제물 진설을 마친 후 김종식 법사가 서낭당 밖을 향하여 앉아서 징을 치며 부정경을 구송, 각종 부정을 호명하여 부정을 쳐내었다. 이어 물을 채운 바가지에 고춧가루, 소금, 숯을 넣어 신칼로 찍어내면서 제단과 제당 내 부정을 쳐내었다. 맑은 물을 바가지에 담아 다시 한번 더 부정을 가셔내었다. 이후 술을 바가지에 담아 신칼로 찍어내며 다시 부정을 가셔내었다. 부정을 가셔낸 후 서낭당 밖에서 신칼을 던져보아 부정을 잘 쳐내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때 신칼의 끝이 밖을 향하면 부정을 잘 가셔낸 것으로 여겼다.

부정을 처낸 후 초헌관이 제단의 초에 불을 붙이고, 향을 피웠다. 각 신위 앞에 술을 각각 올리고, 제관들이 별비를 제단에 올렸다. 이어 제관들이 함께 절을 6번 하였는데, 골말 서낭당에 모신 신령이 3분(성황·단군·토지신)이기에 한 분의 신령당 2번 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초헌관이 재배 후 술을 성황에게 올리고 다시 재배하였다. 아헌

관은 재배한 후 토지신에게 술을 올리고 재배하였다. 종헌관은 재배한 후 단군에게 술을 올리고 다시 재배하였다. 미로면 문화체육회장은 별비를 제단에 올린 후 재배, 술을 한 잔 올리고 다시 재배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로면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길한 일을 모두 제거하고, 평안과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길 기원한 후 다시 재배하였다.

제관들이 모신 신령들에게 술을 올린 후 김종식 법사가 앉아 징을 치며, 각종 신령들을 초들어서 골말 서낭당에 좌정하길 고한다. 이어 미로면과 미로면민, 미로단오제 제관들과 미로면 각 마을 이장, 미로면 문화체육회 간부들 각각의 생기와 주소를 초들어 건강과 평안, 각종 사고·질병을 막아주고, 재수 받기를 축원해 주었다. 더하여 미로면 전체의 발전을 축원하였다. 축원을 마친 후 김종식 법사가 오방기를 들고 골말 성황님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미로단오제를 원래의 형태로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고, 간단하게 위하는 고사 형태로 하니, 비록 약소하지만 미로면과 미로면민들에게 복을 많이 내려 주십시오”라고 축원하였다.

이어서 초헌관을 비롯하여 각 제관들, 문화체육회장에게 오방기를 뽑게 하여 제관 본인의 재수를 각각 봐주고, 조심할 요소들을 알려주었다. 제관들에 이어 미로면 전체를 대표하여 문화체육회장으로 하여금 오방기를 뽑게 하여 미로면 전체의 재수와 회장 본인의 운세를 봐주었다. 오방기를 통해 운세를 본 후 제관들이 음복하고, 정해순 무녀가 성주 쌀에 켄 촛불 앞에서 각 제관과 문화체육회장의 소지를 각각 올려주었다. 이 때 소지를 올린 무녀는 각 제관들과 체육회장이 1년 365일 사고 없고, 건강하며, 많은 재수 받기를 축원해 주었다. 제관들은 소지를 올린 후 다시 제단에 재배하였다.

이어서 김종식 법사가 제단에 진설한 음식을 조금씩 떼어 서낭당 밖

에서 미로단오제를 주관하였던 선대 무당들인 부엉이, 심씨, 최분여 등을 초들어서 풀어먹이고, 육십갑자에 속한 각종 잡귀잡신들을 불러 모아서 풀어먹이는 뒷전백이기를 하였다. 이후 진설한 제물을 내려 상자에 담아 골말 주민들이 함께 드시라고 서낭당 내에 두었다. 이어 서낭당을 초헌관이 들고 미로 둔점 서낭당으로 향하였다.

이어서 ‘성황굿 → 조상굿 → 세존굿 → 산신굿 → 성주굿 → 군웅굿 → 액막이 → 말명굿 → 거리굿 → 꽃노래굿 → 뱃노래굿 → 등노래굿 → 거리굿[뒷전 백이기] → 화산’ 순서로 진행되었다.⁰⁷

굿 방식은 동해안의 일반적인 마을굿과 유사하다. 다만 액막음 절차에서 무당이 직접 주술적 역할을 담당한다. 뒷풀이에는 노래가락과 같은 일반노래를 부르고 메나리조의 민요도 부르는 등 참여 무당에 따라 넘나들이 있다. 액막이 전에 점을 치는 의식인 ‘잔맛이’를 한다.

굿을 할 때 굿상 아래에 각 가정에서 조상상을 내어 와 굿상의 하단에 놓는다. 진설한 제물은 각 가정마다 다르다. 예전에는 둔점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조상상을 내어 왔으나 지금은 심○○씨만 매년 준비하였다. 주민들이 개인 조상상을 차려서 치성 드리는 것을 ‘상다짐’이라고 한다.

굿당에는 숫서낭과 암서낭을 위한 상을 차린 상단과 각 가정에서 내어 온 조상상을 진설한 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굿당의 상단에 만들어진 상은 제물과 지화(紙花)를 올린 큰 굿상과 향, 초, 청수 등을 올린 작은 굿상으로 나뉘어진다. 메·나물·어물은 두 상을 차렸으나, 나머지 제물은 한 상만 준비하여 올렸다. 굿상 뒤편에 지화를 올리고 그 앞에 제물을 진

07 미로단오굿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김도현 외, 『미로단오제』, 강원대 강원전문문화연구소, 2010; 김도현, 「삼척 미로단오제 고찰」, 『아시아강원민속학』 34,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20.

설하였다. 굿상의 맨 앞 줄에는 배, 사과, 참외, 토마토, 수박, 바나나, 오렌지, 귤과 함께 반대기떡을 놓았다. 둘째 줄에는 신명을 왼쪽에 놓고, 옥썴, 과질, 용떡, 어물, 두부전을 놓았다. 셋째 줄에는 떡판시루떡, 백설기, 메, 나물을 놓았다.

할아버지서낭을 굿당에 모시기 위해 골말 서낭당에 가서 당맞이굿을 한다. 이때 단군대왕·성황대신·토지지신을 위한 상을 차린다. 제물의 첫줄에는 배, 사과, 토마토, 귤, 바나나 등 과일과 삼실과, 떡, 고구마전을 놓았고, 둘째 줄에는 어물, 두부전, 나물, 새우전, 사탕을 놓았다. 셋째 줄에는 메와 포를 놓았다.

예전에는 단오굿을 하면 굿당 주위에는 작은 난전이 섰다. 상인 5~6명이 주로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져와서 판매하였다고 한다. 김밥, 우동, 찹쌀 순대, 떡볶이, 녹두전, 잔치 국수, 꿀차, 술 등을 구비한 포장마차형 임시 식당이 서서 굿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



직접 만든 한지를 제단에 올리는 주민

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상인도 있었다.

그리고, 오월 단오에 굿을 하면서 그네를 타고 줄다리기를 하였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지역민들이 조금의 시간이나마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의 단합을 다지면서 즐기기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석전놀이나 그네타기 대신 한쪽에선 옛 전통을 이어서 굿을 하고, 다른 한편에선 기줄다리기를,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팔씨름, 사물놀이 경연, 법고무, 산조춤, 장고춤, 부채춤 등 민속예술공연을 하였다.

2.5. 유산의 가치

2021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미로단오제를 축소하여 운영하였으나, 이전, 그리고 이후에는 미로단오제가 단오서낭굿을 중심으로 미로면민들에게 축제적 성격을 가졌다. 개인과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내는 큰 축제로서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삼척시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주민들의 부담은 다소 줄었으나, 기부금 접수처를 마련하여 성의껏 내는 성금을 단오굿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단오굿을 유지하였던 전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마을 단위의 단오굿 사례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미로단오제는 하거노리 둔점과 골말을 중심으로 열리는 단오굿을 면 단위의 단오제로 전승해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매년 열린다. 이는 단오굿의 전통을 잘 보여주기에 매우 훌륭한 무형유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미로단오제 보존 방안

현재 삼척 미로지역에서 오금잡제의 전통을 이어받아 연행된다고 전해지는 단오제가 매년 열린다. 이 때 미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참가하며, 각지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어 비록 규모는 작지만 먹거리를 중심으로 미로 단오장이 서는 등 전통이 잘 전승되고 있다.

매년 단오에 거행되는 미로단오제의 시작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내륙지역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굿이 사라졌으나, 미로지역내 거의 모든 마을에서 이에 참여하기 위하여 굿당에 모여든다.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로 단오굿을 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면 단위의 단오제가 마을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매년 열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오굿의 전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로단오제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기 위해, 옛 전통에 바탕하여 시대 변화를 수용한 형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로단오제 준비, 미로단오굿 실행과정, 보존회 구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려 한다.

3.1. 미로단오제 공간 구성 및 준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둔집마을 서낭당을 중심으로 서낭숲과 미로 단오장터, 단오 놀이 공간, 굿당 배치 등 공간 구성은 미로단오제 전승을 위한 좋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미로단오장 안내도에 약간의 오류가 발견된다. 신목을 둘러싼 담장 내에 제단이 설치되어 신령을 모셨는데, 배치도에는 신목과 제단을 표기하지 않은 채 제장을 ‘전통 담장’이라 표기하였다.

그리고, 미로단오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녀회 회원들과 각 사회



2008년 미로단오제 굿당 옆의 음식점



2008년 미로단오제 중 열린 게이틀 대회

단체 회원 등 모든 미로면민들이 미로단오제 진행에 적극 동참하였다. 특히 굿당 설치, 음식 준비와 접대 등을 위해 모두가 하나되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미로단오제 보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토대로 볼 수 있다.

향후 미로단오제를 올바르게 전승·보존하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 관련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로단오굿 전통을 이어온 하거노리 둔점·골말 주민들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 미로단오제를 실행하는 공간 제공과 제관만 있고, 전체적인 의사 결정과 진행 등을 삼척시 미로면 문화체육회에서 주관하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예산 또한 삼척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로면 하거노리 골말과 둔점 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모든 미로면민들이 동참하는 미로단오제이기에 그 중심인 하거노리 골말과 둔점 마을이 지닌 위상과 역할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미로단오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굿당 설치와 관련하여 2023년에는 이전과는 달리 미로면 하거노리 둔점 서낭당 신목을 모두 가리고, 일월오행도를 배경 그림으로 배치하였다. 굿을 하게 되면 신령을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맞이굿을



2010년 미로 단오서낭굿의 굿상 아래에 놓은 조상상



2006년 미로 단오서낭굿의 굿상 아래에 놓은 조상상

통해 모셔 온 골말 서낭만 굿당 옆에 세운 후 굿을 한 형태이다. 둔점 서낭에 모신 신령은 토지, 성황, 단군이다. 기본적으로 이들 신령을 포함하여 미로 단오굿 설행을 위해 모셔야 할 신령들을 어떤 형태로든 모셨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굿당에 제물을 진설한 후 그 앞에 개인적으로 조상상을 배치한다. 이전에는 윤○○ 맥에서 준비하였으나, 2023년에 조상상을 준비한 집이 없었다. 미로단오굿이 지닌 전통을 고려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굿당 앞에 조상상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3.2. 미로단오굿 실행 과정

2023년 미로단오굿 실제 실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일차 : 당맞이굿 → 부정굿 → 성황굿 → 돼지삼지창세우기 → 산신굿 → 조상굿 → 세존굿(+중도독잡이놀이) → 작두굿 → 성주굿 → 놋동이굿 → 제면굿[말명굿]

• 2일차: 꽃노래굿 → 뱃노래굿 → 등노래굿 → 거리굿⁰⁸

미로단오굿을 올바르게 전승하기 위해 이전에 설행한 미로단오굿 설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조사·연구 성과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김귀옥: 부정굿 → 서낭 모시기(남서낭) → 화해굿 → 골매기서낭굿 → 조상굿 → 세존굿 → 장군굿(뚫동이굿) → 손님굿 → 말명굿(제면굿) → 대내림굿 → 꽃놀이·뱃놀이·등놀이 → 거리굿(길천)⁰⁹
- ▶ 신용철: 부정굿 → 당맞이굿(청좌굿) → 화해굿 → 조상굿 → 세존굿 → 성주굿 → 장군대감굿(뚫동이굿) → 손님굿 → 말명굿 → 꽃노래·뱃노래·등노래 → 대내림굿 → 거리굿¹⁰
- ▶ 1991년: 부정굿 → 남서낭님 모시는 굿 → 서낭님굿 → 조상굿 → 세존굿 → 놀이굿 → 성주굿 → 군웅굿 → 잔맞이 및 액내이 → 말명굿 → 거리굿¹¹
- ▶ 1992년: 부정굿 → 당맞이굿 → 화해굿 → 조상굿 → 지신굿 → 세존굿 → 성주굿 → 손님굿 → 군웅굿 → 말명굿 → 화초굿(꽃노래·뱃노래·등노래) → 제면굿 → 거리굿¹²
- ▶ 1995년: 부정굿 → 당맞이굿 → 하해굿 → 조상굿 → 지신굿 → 세존굿 → 성주굿 → 손님굿 → 군웅굿 → 말명굿 → 화초굿 → 제면굿 → (꽃노래·뱃노래·등노래) → 거리굿¹³

08 유춘동 교수가 제공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필자가 정리·분석한 설행 과정임.

09 윤동환, 『삼척의 무속』, 삼척시립박물관, 2011.

10 위의 책, 2011.

11 김명자, 「마을굿 연행양상고」, 『한국의 산간신앙』, 민속원, 1996.

12 윤동환, 앞의 책.

13 위의 책, 2011.

- ▶ 2001년: 부정굿 → 옷당맞이 → 청자굿 → 조상굿 → 세존굿 → 성주굿
→ 손님굿 → 군웅장수굿 → 재민굿 → 말명굿 → 잔맞이 → 꽃노래·뱃노래·등노래 → 뒷거리¹⁴
- ▶ 2008년: 부정굿 → 당맞이굿 → 성왕굿 → 산신굿 → 조상굿 → 세존굿
→ 성주굿 → 작두타기 → 놀이굿 → 뭇둥이굿 → 꽃노래굿 → 뱃노래굿
→ 등노래굿 → 뒷전 → 화산 → 재고사¹⁵
- ▶ 2013년: 부정굿 → 성왕굿 → 하해굿 → 산신굿 → 세존굿 → 조상굿 →
성주굿 → 손님굿 → 장군대감굿 → 재민말명굿 → 꽃노래굿 → 뱃노래굿
→ 등노래굿 → 거리굿
- ▶ 2017년: 부정굿 → 서낭굿 → 하해굿 → 산신굿(+ 칠성굿) → 조상굿 → 세
존굿 → 성주굿 → 말명굿(재면굿) → 군웅굿 → 꽃노래굿 → 뱃노래굿 →
등노래굿 → 거리굿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23년에 설행한 미로단오굿은 이전의 굿과 전체적인 맥락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즉, 부정굿을 한 후 성황을 모셔서 화해굿을 하고 산신굿을 하였다. 이후 조상신 성격을 지닌 조상, 세존, 성주, 말명을 위한 후 손님, 장군 또는 군웅을 위한 거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상잔맞이를 별도로 설행한 사례도 발견된다. 그리고 송신 과정에서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노래굿을 하였는데, 등노래굿은 불교 의례를 무속으로 변환시켜 진행한 요소도 일부 나타났다. 마지막에 거리굿을 하였는데, 굿당 경계 지점에서 이름을 불러 풀어먹이는 형태로 진행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당이 다양하게 죽은

¹⁴ 필자 현지 조사.

¹⁵ 김도현, 『삼척 미로단오제 고찰』, 『아시아강원민속학』 34, 아시아 강원민속학회, 2020.

이들을 각각 초들어서 이들을 풀어먹이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미로단오제를 대표하는 행사를 미로단오굿으로 볼 수 있기에 미로단오굿이 지닌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굿을 구성하는 기본 거리와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각 거리를 구성하는 시설과 하위 제차 또한 미로단오굿이 지닌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전문가와 무속인,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모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이틀간 진행하였다. 예전에 이틀간 하였기에 이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진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이틀간 진행하였지만, 현재 도로와 교통 여건이 매우 좋다. 2일차에 설행한 굿거리는 ‘꽃노래굿 → 뱃노래굿 → 등노래굿 → 거리굿’에 불과하다. 이들 굿을 원만하게 하려면 이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실제 이를 참관한 주민은 거의 없고, 제판들 위주로 굿당을 지켰다. 이에 시간 운영에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하루굿 형태로 진행해야 오랫동안 전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올바른 보존을 위해 몇 가지 고민하여 해결해야 할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적으로 굿당에서 부정굿을 한 후 골말 서낭당에 좌정한 서낭을 모시러가는 당맞이굿을 하였다. 그런데, 2023년에는 당맞이굿을 하여 골말 서낭을 굿당에 모신 후 부정굿을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미로단오굿은 서낭굿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함께 신령으로 모셔진 조상을 주로 위하여 이들에 기댄 형태의 굿이다. 이에 조상, 세존, 성주, 그리고 군웅·말명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신령 중 시조신의 성

격을 지닌 세존을 높게 받드는데, 굿거리를 보면 조상굿 다음에 세존굿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셋째, 2008년에 설행한 미로 단오굿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부정굿 → 당맞이굿 → 서낭굿 → 조상굿 → 세존굿 → 산신굿 → 성주굿 → 군웅굿 → 액막음 → 말명굿 → 거리굿’으로 진행되었다. 굿 방식은 동해안에 소재한 마을에서 설행하는 일반적인 마을굿과 유사하나, 액막음 절차에서 무당이 직접 주술적 역할을 담당한다. 뒷풀이에는 노래가락과 같은 일반노래도 부르고 메나리조의 민요도 부른다. 참여 무당에 따라 넘나들이 있다. 액막음 전 또는 별도의 제차에 무당이 각 가정의 조상으로부터 공수를 받아 전해주는 의식인 ‘잔맞이’를 한다.

‘조상잔맞이’는 조상께 술을 올리며 인사드리면, 아는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수용한 과정이 ‘조상잔맞이’이다. 즉, ‘조상’이 지닌 성격을 위해주는 대상이면서 후손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는 신령으로 여기기에 무당이 각 가정의 후손에 해당되는 집에서 그 해의 궁금한 요소들을 물어서 공수를 내려준 후 조상님들께서 명잔 복잔을 내린다고 말하면서 후손에게 음복을 권유한다. 선유산 산맥이·상두산 산맥이를 비롯하여 이 지역에서 설행되는 산맥이에서 조상맞이 중에 조상잔맞이를 하였으나, 미로단오굿에서는 늦동이굿 말미 또는 별도의 제차를 통해 잔맞이를 하였다. 조상잔맞이를 포함시켰기에 산맥이 전통 중 일부가 미로단오굿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늦동우굿 중에 또는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여 조상잔맞이를 한다는 사실은 미로단오굿에서 잔맞이가 지닌 성격을 산맥이와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설행 사례를 보면, 조상굿을 설행한 후 ‘조상잔맞이’를 명잔·복잔 주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개인 조상상이 있으면,



2008년 조상잔맛이를 해주는 이옥선 무녀



2008년 조상잔맛이를 해주면서 조심해야 할 요소를 알려주는 이옥선 무녀

조상이 잘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조상잔맛이를 할 수 있는데, 조상상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기에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였다고 보여진다. 미로단오굿이 지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상상 준비와 함께 조상잔맛이를 이전에 전승되어 온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각 거리를 진행한 무당이 굿거리를 진행할 때 입는 옷을 해당 굿거리에 맞추어 착용할 필요가 있다. 서낭굿을 할 때 주무가 붉은 색 전립에 색동옷을 중간에 갈아있고 진행하였다. 서낭굿이 지닌 성격에 어긋나 보인다. 그리고 성주굿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갓을 쓰고 위목지를 갓에 매어 하는데, 주무가 갓을 성주굿 중간에 착용하였으나, 이내 벗었다. 올바른 보존을 위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3.3. 보존회 구성 문제

현재 미로단오제를 미로면 문화체육회에서 그 준비와 진행을 주도하고 있다. 향후 미오단오굿과 함께 미로단오제를 올바르게 전승하기 위해 미로단오굿 보존회 또는 미로단오제 보존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 전통을 되살리고, 보존하여 잘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향후 과제

미로단오제가 지닌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이를 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로지역 단오 전통은 단오를 맞이하여 진행되는 마을 서낭고사, 조상제사, 그리고 미로면 하거노리 단오굿과 함께 삼거리·동산리 단오굿 전통이었다. 현재 삼거리와 동산리에서는 단오굿을 설행하지 않으나, 이들 마을에서의 설행하였던 단오굿에 대한 기초 조사 또한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로면 활기리·내미로리·상거노리를 비롯하여 산간 내륙지역 많은 마을에서 단오에 서낭고사를 지낸다. 이와 같은 전통 또한 미로단오제가 지닌 전통을 정립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로면 내 각 하위 마을별로 전승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전통을 폭넓게 조사·정리·분석하여 미로단오제 전통 확립에 적용한다면 미로단오제가 지닌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하여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미로면 하거노리 골말과 둔점에서 모신 신령 중 ‘단군’이 있다. 그런데, 미로단오굿 중 이에 대한 거리가 없다. 미로 단오굿 설행 과정에서 단군에 대한 관심과 천착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미로단오굿이 지닌 성격 규정 문제이다. 미로단오굿에 참여하는 무당들이 대부분 동해안 별신굿의 전승 주체로도 볼 수 있기에 미로 단오굿을 해안지역 굿문화와도 접점이 있다는 다음 연구 성과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동해안별신굿의 전승 주체는 세습무 집단이고, 별도의 굿당을 설치한 후 신령들을 모셔와서 별신굿을 한다.

이에 비해 미로단오굿을 서낭굿으로 볼 수 있고, 주로 이 지역에서 무

업에 종사한 강신무들이 주도하며, 마을 제당 앞에 굿당을 설치하여 굿을 한다. 별신굿을 주도하는 무당들이 미로단오굿에 동참한 사례들도 있으나, 이는 주관하는 입장이 아니라 초빙되어 온 입장이다. 굿거리에서 중시하는 신령과 이에 의탁하여 기대하는 신앙적 요소 또한 분명 구분된다. 일부 논문에서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논지¹⁶를 펼치기에 이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삼척지역 단오굿 중심은 오금잡제이다. 이에 미로단오제 또한 오금잡제와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규명하여 미로단오굿만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로단오제를 올바르게, 가치있게 전승·보존하기 위해 미로단오제가 지닌 가치를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한 보존 욕구가 충만해져서 미로단오제가 삼척시 미로면 주민들과 영원히 함께 할 문화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6 전성희, 「삼척 미로단오굿의 연행양상과 특징」, 『민속연구』 36,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18, 356쪽.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許穆, 『陝州誌』, 沈宜昇, 『三陟郡誌』.

2. 단행본 및 논문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제당: 강원도편』, 1999.

김도현, 「삼척지역의 마을공동체 신앙과 성(性)」, 『강원민속학』 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_____, 「강원도지역 읍치 성황사(城隍祠) 고찰」, 『조선사연구』 14, 조선사연구회, 2005.

_____, 「삼척 읍치 성황사(城隍祠)의 지속과 변동」, 『박물관지』 12, 강원대 박물관, 2006.

_____, 이명진, 『삼척 임원리 굿과 음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_____,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선읍산 산메기」, 『박물관지』 15, 강원대 박물관, 2009.

_____,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_____, 외, 『미로단오제』, 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0.

_____, 「삼척 상두산 산맥이에서 모시는 신령의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41, 한국무속학회, 2020.

_____, 「삼척 미로단오제 고찰」, 『아시아강원민속학』 34, 아시아 강원민속학회, 2020.

김일기 외, 『삼척시지』, 삼척시, 1997.

김명자, 「마을굿 연행양상고」, 『한국의 산간신앙』, 민속원, 1996.

김택규, 「자인단오굿」,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박경신·장취주, 『동해안 별신굿』, 화산문화, 2002.

이능화,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1.

이창식, 「삼척지방 오금잡제의 구조와 의미」, 『강원민속학』 8~9, 강원도 민속학회, 1990.

_____, 「삼척지역 미로단오제의 현재적 양상과 가치」, 『강원민속학』 22, 강원도 민속학회, 2008.

윤동환, 『삼척의 무속』, 삼척시립박물관, 2011.

장정룡, 『강릉단오제의 현장론 탐구』, 국학자료원, 2007.

전성희, 「삼척 미로단오굿의 연행양상과 특징」, 『민속연구』 36,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18.

최영희, 「삼척의 오금잡 제사」, 『한국사기행: 그터』, 일조각, 1987.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rvation of Miro Danoje

Kim, Do-Hyeon *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tasks necessary to properly establish the value of Miro Danoje and to preserve, inherit, and develop it.

First, the identity of Miro Danoje can be more clearly established by investigating, organizing, and analyzing Dano-gut, village Seonang-gosa, and ancestral rites traditions, which are handed down by each sub-town in Miro-myeon.

Second, there is Dangun among the spirits enshrined at Gholmal and Dungeom in Hageonori, Miro-myeon. However, there is no "Geori" in Miro Dano-gut. It seems necessary to pay attention and focus on Dangun in the process of Miro Dano-gut.

Third, Miro Dano-gut can be seen as Seonang-gut, mainly led by Kang Shin-mu who engaged in shamanic profession in this area, and a gutdang is established in front of the village shrine to perform a gut. Shamans participating in Byeolsin-gut also engage in Miro Dano-gut, but only in an invited capacity. Additionally, the spirits highly revered in Gutgeori and the associated spiritual elements ar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ose in Byeolsin-gut. Accordingly, in-depth research and recognition of the Miro Dano-gut, which is distinct from Byeolsingut on the east coast, is needed.

Fourth, the center of Dano-gut in Samcheok is Ogeumjamj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the tradition of Miro Dano-gut by identifying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compared to Ogeumjamje.

Fifth, in order to properly and valuably transmit and preserve Miro Danoj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values of Miro Danoje around historicity, artistry, academicity, locality, represent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values.

Keywords Miro-myeon, Dano, Miro-Danoje, Seonang-gut, Ogeumjam, food for ancestors, josang-janmaji, Sejon-gut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Korea University.